

역사 속의 학부(學部) “의학교”, 1899-1907*

황 상 익

서울대학교 의과학교실

The First Modern Medical School, “Uihakgyo” in the Late Choson Period (1899-1907)

HWANG Sang-Ik

Department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edical school named "Uihakgyo"(醫學校) has historic meanings in several aspects.

Uihakgyo was the first modern medical school in Korean history. The school, founded in March 1899 by the co-effort of Korean government and people, had been run mainly by the Korean government(Ministry of Education, 學部) and Koreans themselves including Dean Ji Seog-Yeong(池錫永), Professors Kim Ik-Nam(金益南, the first Korean physician completing regular modern medical course in Japan) and Yu Byeong-Pil(劉秉泌, one of the first graduates of Uihakgyo) throughout the period of its existence until March 1907 when it was emerged into Japanese-ruled "Daehanuiwon"(大韓醫院).

The school produced 54 graduates with full medical licenses, including 19 persons graduated in 1902, first in Korean history. Except them and several practitioners trained abroad, there were only 7 regularly educated modern physicians graduated from "Severance Uihakgyo" in June 1908 until Korea was occupied by Japanese in 1910.

The activity of Uihakgyo was not confined to student education, but was extended to patient care, research and enlightenment of the people. Although most of the activities are supposed as somewhat primitive in the present point of view, it is adequate to say that Uihakgyo did its best in adversity of that period. Moreover, such activities by the staff and graduates of the school lasted long after the close of Uihakgyo in 1907 and the fall of the country in 1910.

Key Words: Uihakgyo, First Modern Medical School, Ji Seog-Yeong, Kim Ik-Nam, Medical License, Late Choson Period

* 이 연구는 “1990년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1. 의학교의 설립 배경과 과정

의학교¹⁾에 대한 연구는 배규숙 등²⁾에 의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 성격이나 대체적인 모습을 짐작하기에 크게 부족한 점은 없다. 그러나 활용한 사료(史料)가 대체로 『관보』, 신문, 『관원일력서』, 『각부청의서(各部請議書)』, 『일본공사관기록』 등 제한적이어서 의학교의 생생한 활동은 뚜렷이 부각되지 못한 형편이며 그 점에서는 이 글 역시 마찬가지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학생 생활 등 구체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의학교의 위치³⁾조차 분명히 규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의학교육의 범위와 성격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근대 의학교육의 역사 서술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의학교에 관한 이 글에서 다루는 의학교육은 당연히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뜻한다.

- 1) 우선 의학교(醫學校)의 명칭에 관해 언급하도록 하자. 당시 신문에는 ‘의학교’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관립의학교’라는 표현이 종종 나타난다. “관립의학교에서는 물리학 공과의 종두학 공과를 겸하여 공부하더니”(『皇城新聞』, 1899년 12월 12일자). 그뿐만 아니라 정부 공식 간행물인 『官報』에도 “현재 官立醫學校에 學員을 募集할 터이니”(『醫學校 學員 勸赴 廣告』, 『官報』 제1313호, 1899년 7월 14일자)라는 구절 등이 보이며, 尹秉學(4회)과 洪人詰(4회) 등의 진급증서에도 “官立醫學校長 池錫永”이라고 하고 있고, 『官員履歷書』에도 관립의학교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또한 2차 문헌인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1962년)에도 관립의학교(255-256쪽)라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표현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예로 裴圭淑, “大韓帝國期 官立醫學校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년;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의 활동”, 『延世醫史學』 2(2)(1998), “한국 최초의사 배울 90주년 기념호”, 299쪽). 물론 ‘관립’으로 세워졌다는 점에서 그러한 표현이 나왔겠지만 의학교 설립의 근거인 법령(<醫學校 官制>)이나 학사 운영에 관해 규정한 <醫學校 規則>에서 일관되게 의학교라고 쓰고 있으므로 그 명칭은 당연히 ‘의학교’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심지어 의학교보다 17년 뒤인 1916년에 세워진 ‘京城醫學專門學校’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서울大學校 醫科大學 同窓會 會員名簿』, 1996년)까지 있는데, 이는 당장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 2) 裴圭淑, 앞의 논문, 1-82쪽; 奇昌德, 『韓國近代醫學教育史』(아카데미아, 1995), 49-52쪽, 127-132쪽;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한울, 1997), 250-279쪽.
- 3) 의학교 위치에 관한 언급은 『태국신문』 1899년 5월 20일자의 “정부에서 설치하는 병원은 영류문 건너 이전 스간원으로 당하고 방장 그 집을 슈리하고 의학교는 중서 훈동(中署 勳洞 — 필자)으로 당하고 슈리하기를 장대히하고”라는 기사에 처음으로 나오며 그 뒤에도 ‘훈동 의학교’라는 표현이 관보와 신문 등에 자주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지금의 종로구 관훈동에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위치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은 조선총독부가 펴낸 『朝鮮總督府醫院 二十年史』(1928년), 48쪽의 “前 總理大臣 金弘集 舊邸”이다. 그보다 더 오래 되거나 1차 사료가 발견되지 않아 1896년의 아관파천 때 참살된 김홍집의 옛집이 의학교로 사용되었는지 단정하기 어렵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그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필자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당시를 연구하는 어떤 역사학자나 門中에서조차 그 집의 위치를 모르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 『朝鮮總督府醫院 二十年史』의 진술이 맞다면, 급진적 근대화 세력의 핵심으로 1884년 갑신정변 때 참살당한 洪英植의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왕립 제중원이 된 것처럼, 온건개혁파의 거두이자 비슷한 운명을 밟은 김홍집의 집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가 된 셈이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 이래 조선 정부와 재조·재야 지식인들은 근대 서양의학과 보건위생술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가 몇 차례 일본에 파견한 사절단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그곳의 근대 서양식 보건의료제도와 근대 서양의술의 실상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김옥균을 비롯하여 당시 더욱 과감한 문호개방과 외래 문물 도입을 주장하던 관리와 지식인들이 상소문과 『한성순보(漢城旬報)』 등을 통해 근대식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일할 의사들을 양성할 것과, 더 넓게는 근대식 보건의료 및 공중위생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우두술이 국가사업으로 채택되었고, 검역(檢疫)·상하수 관리·도로 개수 등 근대 서양식 공중보건과 위생술이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또 1885년 4월에는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양식 병원인 왕립 제중원(濟衆院)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조선 정부는 근대 서양의술과 공중보건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담당할 의사를 양성할 계획으로, 1885년에 설립한 제중원에 그러한 교육기능을 부여하였지만 의도와 희망과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한말에 근대 서양의학을 도입하고 보급, 발전시킨 데에는 조선 정부와 조야(朝野) 지식인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구실이 적지 않았다. 사실이 그러하며 그 실상을 밝힌 연구가 몇 편(배규숙의 앞의 논문과 신동원의 앞의 책 등) 발표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한말 서양의학의 도입은 거의 전적으로 일본인들과 서양인 선교의사들의 공적이거나, 또는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전자와 같이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여기든 후자처럼 부정적으로 보든, '우리'의 주체적 역할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사관이 적어도 의학사의 측면에서 충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터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말 이래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급을 주로 기독교 선교의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와 저작들도 그러한 관점 형성에 기여하였다.

제중원에서의 의학교육이 의사 양성이란 점에서 일단 실패로 돌아간 뒤에도 정부와 지식인들의 노력은 이어졌다. 특히 갑오·을미 개혁 연간인 1895년 하반기부터 의학교육과 대민진료를 담당할 의학교 및 그 부속병원 설립 계획이 세워졌으며, 1896년도 예산안에 그러한 계획이 반영되었다. 1895년 12월 30일자로 확정된 예산안에 책정된 의학교와 부속병원의 예산 규모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89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의학교와 부속병원의 예산⁴⁾

구 분	설립비	운영·유지비	계
의학교	3,050元	3,856元	6,906元
의학교 부속병원	4,555元	9,798元	14,353元
합 계	7,605元	13,654元	21,259元

이러한 예산은 1894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로 이전되기 전 정부병원 시절의 제증원 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새로 예정된 병원의 연간 운영·유지비는 제증원(대략 3,000원)의 세배가 넘으며, 거기에 4,000원 가량의 의학교 유지비를 합치면 네배반쯤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산

4) 1896년(建陽 元年)도 예산안 및 예산 설명서 중 의학교 및 의학교부속병원 관련 부분.

豫算

開國 五百四年 十一月 十五日 [주: 陰曆]

建陽 元年度 歲入歲出 總豫算

歲出經常部

內部 所管

第六款 醫學校費 六千九百六元

第一項 設立費 三千五十元

第二項 維持費 三千八百五十六元

第七款 醫學校付屬病院費 一万四千三百五十三元

第一項 設立費 四千五百五十五元

第二項 維持費 九千七百九十八元

內部 所管 合計 一万四千四百六十六元三十元

建陽 元年度 歲出 豫算 說明書

歲出經常部

內部 所管

第六款 醫學校費

一 本款 以下로 第九款에 至하는 各款은 皆是 本年度 新設한 事業이라

第一項 設立費

一 本費 要求額 中 校舍 購買費를 磨鍊하얏는데 舊公廨 等 適當한 處所가 有하기로 其 購買費를 削除하야 修理費만 磨鍊하고 其他 要求하든 諸費額을 半減함

第二項 維持費

一 本費는 校長으로써 教授를 兼任케 하고 敎官 員數를 減定함

第七款 醫學校附屬病院費

第一項 設立費

一 本費는 前款 第一項에 如함

第二項 維持費

一 本費는 入院患者 平均 三十人을 十五人으로 半減하야 醫員 以下 職員 及 諸經費를 從此 削減함

(『官報』 제260호 부록, 1896년 1월 20일자)

을 통해 이 당시 정부가 계획한 의학교와 병원의 규모는 제중원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의학교와 부속병원의 설립과 운영·유지에 책정된 예산액 21,259원은 그 해 내부(內部) 전체 예산 1,446,630원의 1.5%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의학교의 운영비 3,856원은 한성사범학교 및 부속소학교 예산 12,221원, 관립소학교 5,568원, 성균관 7,986원보다는 적지만, 일어학교 2,042원, 영어학교 2,558원보다는 많은 액수이다.

이렇듯 1896년도 정부 예산에 계상되기까지 했던 의학교와 부속병원은 아관파천(俄館播遷) 등 잇달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실종되고 말았다.⁵⁾ 그리하여 그 설립까지 다시 3년의 세월을 더 기다려야만 하였다.

1895-96년 무렵의 정부 계획이 일단 무산된 뒤에도 근대적 의학교육기관과 병원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大韓帝國)으로 바꾸고 칭제건원(稱帝建元)을 선포하는 등 정치·외교적인 조치와 더불어 실제 자주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국력 신장 방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마련되는 가운데 의학교육과 병원 설립은 더욱 구체적인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 당시에 근대 서양식 교육은 국력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해되었으며, 그것의 일환인 의사 양성 역시 중요한 관심사였다. 이렇듯 의학교육기관의 설립은 보건의료적인 측면과 더불어 교육의 진흥이라는 점에서도 논의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비록 원초적인 모습이지만 근대적 시민계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새로운 계층의 대변자 구실을 한 『독립신문』은 창간되던 1896년부터 1899년 무렵까지 민중에 대한 보건위생 계몽과 더불어 의학교와 병원 설립의 여론을 주도하였다. 『독립신문』은 초기부터 위생 계몽에 관련된 기사와 논설을 게재하는 한편, 정부와 서양선교회의 보건의료 활동과 일본 의학교 유학생 등을 소개하였다. 『독립신문』은 1896년 12월 1일자에 의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이 논설은 다음과 같이 의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당장 의학교를 세울 수 없는 처지를 인정하였다.

... 조선 사람이 의원 사물에 죽는 사람이 일년에 몇천명이니 의원이 업서더면 이 사람들이 이러케 죽을 리가 업는디 무식한 의원에 학문 없는 약과 침 사물에 불상한 인성이 목숨을 만히 일허스니 엇지 불상하 지 안후리요 외국서는 사람이 의원이 되랴면 적어도 날급 히(히)를 날마다 학교와 병원에서 각식 병을 눈으

5) 비록 근대적 의미의 의사, 즉 全科醫는 아니지만 근대 서양의술의 한 가지인 종두 시술을 담당할 種痘醫師를 양성할 목적으로 그 전 해인 1895년 11월 7일 관련 법령(<種痘醫養成所 規程>)이 제정되었으며 1896년도 예산안에 1,368元의 비용이 계상되었던 종두의양성소 역시 비슷한 운명을 밟은 것으로 생각된다.

6) 유럽 선진 의과대학들의 경우인데, 이 또한 조금 과장되어 있다. 이 논설의 필자로 여겨지는 서재필은

로 보고 다스리는 법을 공부한 후에 대학교 교관들 압회서 시험을 지낸 후 다시 의원 노릇을 하려면 그 동리 판윤 압회 가서 상등 의원들을 청하여 다시 시험하여 그 사람이 낫치 외치와 부인병들과 오히 병들과 허산하는 뒤 관계되는 학문과 화학과 약물학과 약문드는 법을 다 시험을 지낸 후라야 판윤이 인가장을 주어야 주어 비로소 민간에 나아가 의원 노릇을 하는 법이라?) ... 정부에서 혁성을 위하여 의학교와 병원은 아직 못세워 주드려도 데일 침주는 법은 금하여 불상한 목숨들이 살 터이요 ... 몇처 원망 잇다고 상관을 것 업시 이 몇가지를 경무청과 한성부에서 허기를 우리는 밋고 바라노라

의학교와 병원 설립을 위한 재야(在野)의 노력은 1898년의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활동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일반민중들도 대거 참여한 만민공동회의 활동에는 유학생 학비 지원에 관련된 부정을 지적하는 등 교육행정 비판이 포함되었으며, 이 같은 교육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의학교 설립을 정식으로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즉 만민공동회의 참가자들은 1898년 7월 15일 종로에서 대중집회를 갖고 목원근, 송석준, 홍정후 등 세 사람을 총대위원(總代委員, 대표)으로 선임하여 학부대신에게 자신들의 요구, 즉 서양의학을 교육하는 의술학교의 설립을 건의하는 편지를 내도록 하였다. 이 때의 사정을 전하는 『독립신문』 1898년 7월 18일자 ‘스민편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민 편지) 이돌 십오일 스민들이 종로에서 회의하고 목원근 송석준 홍정후 삼씨를 별노히 총대위원으로 선당하여 학부대신에게 편지하려 한다노되 그 편지 스연인즉 경계주는 서양 의원이 대한에 와서 병원을 설치한지 십여년에 그 정묘한 법방으로 병든 사람을 살닌 것이 가히 익이여 헤아리지 못하며 궁핍한 병든 사람의게 옷과 밥도 주며 죽은 사람의게 장수하는 부비도 조당을 하니 그 감수함은 업되어 생각건 뒤 본 대신의셔도 아시려니와 대한에서도 서양 의술을 비화 익혀 의방하여 시험함이 위설의 급선무어늘 지우금 학습을 베프러 열지 아니 함은 도로혀 스스로 다형히 너혀 그리 호오닛가 학교로 의론함진디 지성후신 칙령을 받드러 각 학교를 베프러 세우시고 스대로 써 권면하시되 인민 구원하여 살니는 의술학교에 이르러는 지금까지 베풀미 업스니 나라 혁성의게 큰 붓그러움을 어느 스대애나 면후으며 그 의약의 현현 미미한 묘리를 비화 우리 나라 병든 사람들을 어느 날애나 롱히 다스리오릿가 대범 궁하고 곤하고 지극히 간란한 집에도 의약을 쓰거던 흠울며 온 나라리오 신주된 주는 간함이 잇으며 스민된 주는 고통이 잇는 것은 네와 이제에 통한 의은즉 지금 스민이 흠의 모혀 의론하고 이에 울어러 고후오니 나려 헤아리신 후에 골우디 잇슬지 업슬지 느지려히 홀지 급히 홀지 가라 홀지 불가라 홀지 폐여 보여 이 스민으로 하여금 밤낮으로 응망하는 것을 특별히 뭇초심을 업되어 불우노라고 후갯다더라

만민공동회 집회가 있는 뒤 열흘쯤 지나 학부대신 서리 고영회는 아래의 『독립신문』 1898년 7월 25일자가 전하는 것과 같은 답신을 하였다.

미국에서 3년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7) 이 역시 유럽의 경우이다. 미국은 당시까지도 의사면허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학부 회답) 스민이 공의하고 의술학교 설치를 일노 총터위원 삼씨를 선당하야 학부에 편지하였다는 것은 일전 신문에 기지하였거니와 학부대신 서리 고영희씨가 회답하기를, 경복주는 제증 위성이 시무에 반다시 중요로움을 일즉 알았스되 다른 학교 힘쓰는 것이 초창하고 경비가 군줄하야 각종 학교를 레산에 넘치 못한 고로 의술학교도 지우금 겨를을 못하였스니 이럿케 아시고 아즉 후일을 기다리심을 요구하노 라고 하였더라

이 기사처럼 학부대신 서리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의술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장차 형편이 나아지면 의술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계획을 완곡하게나마 언급하였다.

우리는 만민공동회의 이러한 활동에서 근대 서양식 의학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더욱 구체화되고 강렬해짐을 알 수 있다. “독립협회의 자강 개혁을 위한 학교 설립 주장이 이미 일반 민중의 보편적 요구로까지 발전되었으며 … 이 시기에 민중의 뚜렷한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⁸⁾는 평과 같이, 근대적 의술과 그것을 가르칠 의학교육기관의 의의에 대해 당시 민중들이 분명히 인식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주체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의학교의 설립이 만민공동회 운동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러한 운동이 없었을 경우 바로 이듬해에 의학교가 실제로 설립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그 운동의 의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 초기 의학교 설립에 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을 때 더욱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이었다. 지석영은 일찍이 1879년 12월 6일(음력) 향리인 충주군 덕산면의 처가에서 두살난 처남에게 시술한 이래 본격적으로 종두술을 도입하였으며, 『우두신설(牛痘新說)』(1885년), 『신학신설』(1891년) 등의 저술을 통해 근대 서양의술을 널리 소개, 보급해 왔던 인물이다. 이러한 지석영이 정부가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핵심 회원 17명을 체포한 사건으로 민중의 엄청난 반발이 벌어지고 있던 무렵인 1898년 11월 7일, 의학교 설립을 청원하는 서신[上學部大臣書]을 학부대신에게 보냈다. 1896년 김홍집 내각의 붕괴 이후 동래 부사에서 면직되었으며, 그 뒤 황해도 유배형을 받았다가 독립협회의 강력한 요구로 서울에 돌아와 있던 지석영은 오랜 숙망인 의학교 설립에 관해 오래 전부터 면식이 있는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에게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이도재는 지석영의 『우두신설』에 서문을 썼을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 만민공동회 대표들의 편지보다 논리가 더 정연한 그 서신에는 의학교의 교장으로 초기의 근대 의학교육을 주도한 지석영(넓게는 개혁적 지식인들)의 의학관, 의학교육관이 잘 나타나 있다.

지석영의 건의서에는 의학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전망까지도 담겨 있다. 즉 ① 의학교의

8)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1981), 335쪽.

설치 장소(시급히 서울에 의학교를 설립, 亟設醫學學校於都下), ② 교수 확보(서양말도 잘하는 일본인 명의를 교사로 초빙, 雇聘日本名醫之兼通西語者 以爲教師), ③ 학생 선발(우리 나라의 일어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한문에도 뛰어난 총명한 몇 사람을 골라 학도로 삼아, 選我日英語學生中 稍優漢文之聰俊幾人 以爲學徒), ④ 교사의 관리와 학생 교육(교사들은 정부 스스로가 도맡아 편안하게 하고 학도들은 교사들이 스스로 도맡아 지도, 教師則政府自當安之 學徒則教師自當囿之), ⑤ 졸업 후의 활용(열심히 배우게 한 뒤 졸업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빼어난 인재를 선발 하여 태의와 군의의 직분을 내려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각 도에 파견, 使之勤篤講習 待其卒業 拔其尤勝 太醫軍醫之材品 綽有餘裕而派送各道), ⑥ 의학교육과 의사 양성의 전국적 확대(다시 그곳에 의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設校授徒), ⑦ 그 효과(곧 뛰어난 의사들이 나라 안의 모든 지역에 두루 퍼져나가게 될 것이니 모든 군인과 민중들이 두루 장수마음에서 살게 되는 셈이 됩니다, 青囊國手遍于闔境 上下軍民共躋壽域) 등이 들어 있는바, 그 가운데 실행되지 않거나 변경된 것들도 더러 있지만 대체로 <의학교 관제>와 <의학교 규칙>, 그리고 실제 운영에 반영되었다.

7월 중순의 만민공동회의 건의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의학교의 조속한 설립이 어렵다고 답했던 정부는 뜻밖에도 즉시 지식영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학부대신 이도재는 불과 이틀만인 11월 9일자로 의학교 설립을 위한 비용을 1899년도 예산에 포함시킬 것과 1899년 봄에 의학교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서[學部大臣答書]를 지식영에게 보냈다.

대한제국 정부의 이러한 급작스런 입장 변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급박한 정국, 특히 독립협회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립협회는 1898년 7월경부터 조병식(趙秉式)·이용익(李容翊) 등 무능하고 부패한 대신의 사임 요구, 의회설립 및 그것에서 한발 후퇴한 중추원(내각자문기구) 개혁 요구 등 본격적인 정치운동으로 전개하였다. 특히 10월 29일에는 종로에서 사상 최초로 정부대신들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석한 관민공동회(官民共同會)가 개최되어 당시 현안에 대한 민간의 요구가 담긴 <헌의 6조(獻議六條)>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고종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중추원 장정 개정> 등 5개조의 조칙을 추가하여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중추원 의관(議官)의 절반을 독립협회에서 선출하도록 결정되었다. 정국의 주도권은 독립협회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며칠 사이에 상황이 급변하였다. 서울의 여러 곳에 독립협회 회장 윤치호가 대통령으로 추대될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벽보가 나붙었고, 조병식 등 일부 황실 측근세력들은 이를 기회

로 독립협회가 11월 5일 국체를 공화정으로 바꾸고 박정양을 대통령으로, 윤치호를 부통령으로, 그밖의 독립협회 간부들을 각부 대신으로 선임하려 한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그러한 음모의 전말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고종은 그 즉시 이상재 등 독립협회의 핵심 간부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독립협회 해산 조칙을 발표하였으며,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에 서명한 대신들 대부분을 파직하고 조병식 내각을 출범시켰다. 이에 대해 독립협회 회원들을 비롯하여 민중들은 거세게 저항하였다.

지석영이 건의서를 보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도재가 이에 화답하는 답신을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때였다. 자세한 사정을 전해 주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채찍과 당근 정책’을 연상시키는 정황이다. 즉 황권(皇權)을 견제, 제약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독립협회의 정치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가하는 대신,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의 그밖의 개혁 요구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황제와 새 내각의 전략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지석영의 의지, 그리고 지석영과 이도재 사이의 친분도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당시의 정국 상황이 민중들의 의학교 설립 요구를 수용하게 된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의학교의 설립이 역사의 요청과 민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음은 아래 『데국신문』을 비롯하여 당시의 신문기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 관찰스 지석영씨가 우리나라에 의술하는 학문이 업슴을 기탄히 녀쳐서 의학교를 설치후자고 학부대신 리도재씨에게 청원후엇더니 리대신이 지령후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업서서 할 수 업스니 명년도에 경비를 마련후여 가지고 의학교를 설치후겟노라 후엇다 후니 우리는 그 학교가 속히 설치되기를 바라고 지석영씨가 위성에 대단이 유지함을 치하후노라" (『데국신문』 11월 17일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석영 개인의 역할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역사는 계기가 주어졌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20년에 걸쳐 종두술을 보급하고 근대의학의 도입을 위해 노심초사해 온 지석영이었기에 바로 그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더 넓게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던 지석영이었기에 그러한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 터이다.

대한제국 정부는 학부대신 이도재의 약속[學部大臣答書]대로 의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6,030원(교직원의 봉급은 포함되지 않음)을 1899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였다.⁹⁾ 이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설립비¹⁰⁾라고 잡으면 설립 첫해의 운영비는 3,000원 가량인 셈이다.¹¹⁾

9) 『독립신문』 1899년 2월 1일자 보도.

예산 배정에 이어 학부는 1899년 2월 28일자로 대신 신기선(申箕善)의 명의로 <의학교 관제 청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안 심의를 맡은 중추원은 3월 8일 수정 없이 이를 통과시켜, <의학교 관제>가 3월 24일 칙령(勅令) 제7호로 반포되었다.

의학교의 교장과 교관 등을 선임하고, 교사(校舍)와 설비를 마련하고, <의학교 규칙>을 정하고, 학생을 선발하여 개학식을 가진 것은 반년 가량 뒤인 1899년 10월 2일이었지만, 그러한 조치는 모두 이 <의학교 관제>에 의한 것이므로 1899년 3월 24일을 의학교의 설립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은 ‘의학교’의 설립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의학교육의 탄생일이며 근대의학 120년 역사에서 뚜렷한 획을 긋는 날이기도 하다.

『독립신문』은 <의학교 관제> 반포 직후인 1899년 3월 29일, “(의학교) … 본국 인민을 위하여 의학교와 병원을 설치한 것이 한 곳도 업는 것은 대한에 참 슈치가 되는 일이라 우리가 정부에서 의학교를 설치한다는 말을 듣고 얼마큼 치하하며 고명한 의원을 고빙하야 잘 실시되게 하기를 볼 더니 지금 의학교를 실시하라고 반포한 규칙을 본즉 정밀하기로 또한 반갑게 녀여 좌에 괴지하노라”고 하며 의학교 설립을 다루면서 <의학교 관제> 전문(全文)을 게재하였고, 『皇城新聞』 역시 같은 날짜에 <관제>를 수록하였다.

<의학교 관제>는 제1조에서 의학교의 성격을 “國民에게 內外各種醫術을 專門으로 教授하는 處”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내외 각종 의술이란 내과와 외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술이라는 뜻이며, 기본적으로는 근대 서양의학을 가르치되 내과는 동·서양 의학의 장점을 취하여 교육한다¹²⁾ 정부의 계획을, 관제 반포에 앞서 의학교 설립을 보도한 『皇城新聞』 3월 8일자 기사 “(醫學校設立) … 內科는 泰西와 東洋 醫術을 參互하여 教授한다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제2조에는 “醫學校에 修業年限은 三箇年으로 定함이라” 하여 교육기간을 3년으로 하였는데,¹³⁾ 실현되지는 못하였지만 <의학교 규칙> 제3조의 “授業年限 三箇年은 速成科나 學科를 簡

10) 신동원, 앞의 책, 255쪽.

11) 이러한 운영비는 같은 해 성균관(2,870원), 한성사범학교(2,790원), 각종 어학교(영어학교 2,348원, 일어학교 1,179원 등)와 엇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1896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던 6,906원(설립비 3,050원, 운영비 3,856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12) 구체적인 학과목은 다음과 같이 <醫學校 規則>에 규정되어 있다. “學科는 動物 植物 化學 物理 解剖 生理 藥物 診斷 內科 外科 眼科 婦嬰 衛生 法醫 種痘 體操로 定함이라”(第二款 學科及程度 第一條).

13) 이러한 점을 들어 의학교를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기준을 무리하게 백년 전에 적용하는 셈이다. 당시 미국 의과대학의 대부분도 의학교와 교육기간이 비슷하여, 徐載弼은 3년제인 워싱턴의 콜럼비아 의과대학을 1892년에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또한 金益南은 3년반 과정의 일본 慈惠醫院醫學校를 1899년에 졸업하였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인 金點童(박에스터)이 4년 과정의 미국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1900년에 졸업하였다. 당시 미국 의과대학의 사정은 황상익, “20세기초 미국 의학교육의 개혁과 <플렉스너 보고서>”, 『醫史學』 3(1994), 1-19쪽을 참조.

易摘要로 主하고 國內醫術이 發達한 後에는 年限을 更定하여 深切한 術業을 教授함이라”에 보듯 이 형편이 나아지면 연한을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地方情況에 依하여 醫學校를 地方에도 置함을 得함이라”고 하여 장차 근대식 의학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내비치지만,¹⁴⁾ 이 역시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의학교는 정부의 오랜 계획, 지식영을 비롯한 선각적 지식인들의 노력, 그리고 민중들의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 탄생한 것으로, 1879년 지식영의 종두술 시술로 비롯된 근대의학 도입의 한 결실인 셈이다.

2. 의학교의 운영과 활동

의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기관이며 또 그 설립 목적에 부응하여 실제로도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식 의사들을 배출한¹⁵⁾ 학교라는 점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니지만, 학과(學科), 입학, 시험, 졸업 등 모든 학사(學事)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된 점도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점이며, 또한 그 설립배경 및 과정이 그러했듯이 그 운영도 우리나라 정부와 인사들에 의해 주도된 기관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인 후루시로(古城梅溪, 1899. 5-1900. 5 재임)와 고다케(小竹武次郎, 1900. 6-1907. 3 재임)가 의학교 교사(教師)로 학생교육의 일부분을 맡았으며 고다케는 1902년에 개원한 부속병원에서 학생들의 임상교육과 더불어 진료를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본인 교사의 역할은 <의학교 관제> 제11조 “敎官을 外國人으로 以하여 充할 時에는 敎授만 掌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학생교육에 국한되었으며, 모든 학사 운영은 학부대신, 교장, 교관 등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당시에도 남아 있던 전근대적인 정부 운영 등으로 교관(敎官)과 서기(書記) 인사에 난맥상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 학교 존속 기간 내내 교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식영을 비롯하여 남순희(南舜熙), 김익남(金益南),¹⁶⁾ 장도(張燾), 유세환(劉世煥), 유병필(劉秉泌), 최

14) 그러한 점은 칙령 제14호로 반포된 <內部病院 官制> 제13조의 “地方情況에 依하여 病院을 各地方에 置함을 得할 事”가 나타내듯이 정부 병원의 전국적 확대 계획과 짝을 이룬다.

15) 이들 졸업생은 <의학교 규칙> 제6관 제9조의 “卒業狀을 付與한 後에 內部大臣이 醫術開業免許狀을 付與함이라”는 규정에 따라 개업을 할 자격을 비롯하여 의사로서의 모든 자격과 권리를 인정받았다.

16) 김익남은, 주 13에 간략히 언급했듯이, 1899년 7월 30일 일본 東京 慈惠醫院 의학교 全科를 졸업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사이다. 이에 앞서 徐載弼이 1892년에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지만 미국인으로

규익(崔奎翼) 등 당시 최고 수준의 인사들이 학생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설립 이래 대한의원(大韓醫院)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의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¹⁷⁾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근대 의학교육의 선구자들인 것이다.

의학교의 역할과 활동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물론 학생교육이지만, 의학교는 교과서 편찬사업과 부속병원을 통한 진료, 그리고 예방활동과 교육계몽활동 등도 활발히 벌여나갔다. 이 점에서도 의학교는 근대적 의미의 의학 교육·연구·봉사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주도한 것은 교장 지식영이었다. 일찍이 한문을 모르는 민중들을 위해 한글로 『신학신설』(1891년)이라는 근대적 예방의학서적을 저술하였던 지식영은 의학교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질병 예방을 위해 많은 활동을 벌였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꼽자면 우선 1900년 2월 일본에 페스트가 창궐할 때 신문에 아래와 같이 의학교에서 페스트 예방법을 교육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을 들 수 있다.

近日에 黑死病이 日本 神戸 等地에서 流行하야 染患者가 百難救一이라 하니 本國에도 傳染을 念慮가 不無하리라 不可不 豫防法을 廣佈하야 國民衛生上 利益을 保호되기로 來日 曜 二十五日(陰曆 正月 二十六日) 下午 一時에 醫學教師 古城梅溪氏가 勳洞 醫校에서 該豫防法을 說明을 터이니 衛生上에 有志者 兪君子는 來聆하심을 爲望

醫學校長 池錫永 告白¹⁸⁾

그리고 이어서 3월 하순 경에는 다음과 같이 의학교에서 페스트 예방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하였다.

귀화한 뒤였으므로 김익남을 최초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김익남은 1900년 4월 2일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받아 1904년 9월 23일까지 약 4년 반 동안 재임하는 한편 임시위생원 의사, 유행병 예방위원 등의 직을 겸임하면서 학생 교육, 우리나라 근대의학 발전, 국민 건강 증진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 뒤에도 대한제국 군대의 軍醫長으로 군인과 민간인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에 진력하였다. 특히 1908년 11월 15일 후배 및 의학교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이자 대한의사협회의 모체인 醫事研究會를 결성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의료를 통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일제에 강점당한 1910년 이후에는 만년에 귀국할 때까지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김익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사로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7) 이 표는 당시의 『官報』, 신문, 『官員履歷書』 등과 金斗鍾의 『韓國醫學文化人年表』(探求堂, 1966), 三木榮의 『朝鮮醫事年表』(思文閣出版, 1985), 배규숙의 앞의 논문, 기창덕의 앞의 책, 신동원의 앞의 책 등을 비교 종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자료들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 이 표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18) 『皇城新聞』 1900년 2월 21일자.

<표 2> 의학교 교직원 (1899. 3. 24-1907. 3. 14)

직위	성명	기간	비고 1	비고 2
校長	★지석영(池錫永)	1899. 3.28-1907. 3.14	大韓醫院 敎官(07.3.15-07.12.31) 大韓醫院 學監(07.6.1-07.12.31) 大韓醫院 學生監(08.1.1-國恥)	種痘術 導入 醫學校 設立 建議
敎官	경태협(景台協)	1899. 3.29-1899. 4.11		1895년 콜레라 流行 때 軍隊 治療 功績
	★남순희(南舜熙)	1899. 3.29-1901. 8. 2		日本 慶應義塾 → 私立 工手學校 → 文部省 견습
	심영섭(沈瑛燮)	1900. 1. 8-1900. 4. 3	外部 參書官 轉任	
	★김익남(金益南)	1900. 4. 2-1904. 9.23	軍部 醫務局 第1課長(陸軍 3等 軍醫長) 轉任 1908년 11월 醫事研究會 會長 國恥 후 滿洲로 亡命, 獨立運動	日本慈惠醫院醫學校 1899년 卒業
	홍중덕(洪鍾德)	1900. 4.17-1900. 4.19		
	윤태응(尹泰應)	1900. 4.21-1900. 5. 1		
	이병선(李炳善)	1900. 5. 1-1900. 9.25	商工學校 敎官 轉任	1899.11.4-1900.5.1 : 書記
	김하영(金夏永)	1900.11.28-1900.12. 4		
	이승현(李昇鉉)	1900.12. 4-1900.12. 7		韓醫師(?)
	★전용규(田龍圭)	1900.12. 8-1904.12. 8		1904.12.8- ? : 書記
	박승원(朴承源)	1901. 8.15-1901.11.14		日語學校 卒業
	이주환(李周煥)	1901.11.14-1901.11.30		陸軍參謀本部陸地測量 修技所 1899년 卒業
	★장 도(張 燾)	1901.11.30-1904.10.14		法科 卒業, 주로 日本 語 敎材 翻譯
	醫學校 第1回 卒業生 19名 敎官(待期) 任官 (1902년 7월 17일자)			
	醫學校 第2回 卒業生 12名 敎官(待期) 任官 (1903년 7월 27일자)			

직위	성명	기간	비고 1	비고 2
教官	★유세환(劉世煥)	1904.10.13-1907. 3.14	大韓醫院 教官(07.3.15-07.12.31) 大韓醫院 教授(08.1.1-國恥)	藥學 專攻
	안상호(安商浩)	1904.10.18-1905. 1.16	1908년 11월 醫事研究會 副會長 1915년 12월 漢城醫師會 會長	日本慈惠醫院醫學校 1902년 卒業
	★유병필(劉秉泌)	1905. 1.19-1907. 3.14	大韓醫院 教官(07.3.15-07.12.31) 大韓醫院 教授(08.1.1-09.1.31) 1908년 11월 醫事研究會 總務	醫學校 第1回 卒業
	醫學校 第3回 卒業生 4名 教官(待期) 任官 (1905년 12월 19일자)			
	★최규익(崔奎翼)	1906. 1.15-1907. 3.14	大韓醫院 教官(07.3.15-07.12.31) 大韓醫院 教授(08.1.1-國恥)	東京工業學校 응용화학과 1899년 卒業
書記	유홍(劉泓)	1899. 3.29-1899.11. 4		
	이병선(李炳善)	1899.11. 4-1900. 5. 1		1900.5.1-1900.9.25 : 教官
	★윤태응(尹泰應)	1900. 5. 1-1902. 1.18		1900.4.21-1900.5.1 : 教官
	★김교필(金敎弼)	1902. 1.18-1904. 1. 1		
	이운승(李雲承)	1904. 1. 2-1904. 3. 6		
	이우승(李雨承)	1904. 3. 6-1904. 4.28		
	전용규(田龍圭)	1904.12. 8- ?		
教師	★후루시로 (古城梅溪)	1899. 5. -1900. 5.21		1886년 日本公使館 醫員, 1891년 贊化醫 院 開設, 1897년 種 痘醫養成所 附設
	★고다케 (小竹武次)	1900. 6.11-1907. 3.14	大韓醫院 教育部長, 醫育部長, 附屬醫學校長(07.3.15-國恥)	日本軍 1等軍醫

★ 표시는 1년 이상 재임을 나타냄

근일에 흑수병이 유행하여 죽은 자 오륙명이란 풍설이 잇기로 듯기에 송구하야 병원에서 만든 예방법을 자에 기재하오 흑수병이란 병은 여러 가지 전염병 중에 제일 지독한 병이니 일천삼백삼십년 전에 서양 애급국과 바레스디나에서 비로소 시작하야 백성이 다죽어 그때이 빈터가 되었고 그 후로 인도국 청국 연해변과 대만 등지에 종종 유행하더니 작년 겨울에 일본 드러와서 점점 퍼질 증도가 잇스니 ... 우리 의술 공부하는 사람의 더욱 설력할 일인 고로 이에 예방서를 지어 세상에 공포하오니 ...¹⁹⁾

또한 1902년에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虎列刺 豫防注意書』를 의학교에서 편찬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일반민중을 주 대상으로 한 이 소책자는 1) 緒論, 2) 虎列刺菌, 3) 虎列刺菌이 人體에 침입하는 經由, 4) 人體의 自然防衛, 5) 虎列刺病 및 流行, 6) 一般豫防法, 7) 個人의 豫防法, 8) 患者의 管理 및 消毒法 등으로 구성되었다.²⁰⁾

예방과 계몽활동은 의학교가 문을 닫던 때까지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아래 기사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관해 교육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것 같다. 오늘날 병원에서 환자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효시격인 셈이다.

(醫敎婦女) 有志人士가 醫學校內에서 婦女를 招集하야 衛生産業孕胎育兒하는 法을 敎育코저 하야 敎師는 劉秉弼氏로 選定하고 上學時間은 每 日曜日 午後 三時로 定하얏다더라²¹⁾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의학교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설립 이후 조금씩 증가했으면 했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1906년도 예산은 아래와 같다.²²⁾

光武 十年度 歲入歲出總豫算表

歲出經常部

學部 所管

第六款 醫學校 一萬二百六十六圓

第一項 俸 給	二千四百四十圓	第二項 廳 費	四百五十圓
第三項 給與費	一千八百圓	第四項 書籍費	六百圓
第五項 病院費	一千四百七十圓	第六項 校舍修理費	五十圓
第七項 雜給及雜費	二百十六圓	第八項 外國人諸給	三千二百四十圓

19) 『대국신문』 1900년 3월 27일자.

20) 배규숙, 앞의 논문, 43쪽.

21) 『皇城新聞』 1907년 2월 22일자.

22) 『官報』 호외, 1905년 12월 15일자.

그 사이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의학교에 배정된 예산(10,266환)은 초기보다 늘어난 사실을 예산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해에 의학교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관립소학교(13,406환), 농상공학교(10,974환), 중학교(10,704환)와 비슷한 규모였으며, 그밖의 다른 학교들(성균관 6,486환, 사범학교 6,793환, 고등소학교 2,820환, 일어학교 7,170환, 영어학교 10,242환, 법어학교 6,948환, 한어학교 3,255환, 덕어학교 5,978환)보다는 많은 것이었다. 또한 예산 내역을 통해 의학교 운영 상황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의학교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당시 유럽의 일류 의과대학에 견준다면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교육과 더불어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쳤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주로 지식영 등 한국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할 점이다.

3. 의학교 졸업생

의학교 졸업생들에 앞서 미국과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이 몇 있었지만,²³⁾ 우리나라에서 정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것은 1899년 의학교에 입학하여 1902년에 제1회로 졸업한 19명이 그 효시이다. 그리고 이어서 1903년(제2회)에 13명,²⁴⁾ 1905년(제3회) 4명 등 모두 36명이 의학교가 존속(1899-1907년)한 동안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의학교가 폐지되고 대한의원으로 흡수된 뒤에는 1907년 13명, 1908년 5명 등 18명이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다. 이들 18명은 비록 졸업은 대한의원 시절에 하였으나 입학은 물론 대부분의 학업을 의학교 시절에 받았으므로 각각 의학교 제4회 및 제5회 졸업생으로 간주한다. 그리하여 의학교는 모두 5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셈이다.²⁵⁾

23) 주 13의 세 사람 외에 1902년에 일본 慈惠醫院醫學學校를 졸업한 安商浩가 더 있다.

24) 나중에 추가된 朱昌謙을 포함.

25) 이들의 명단과 졸업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1회 졸업생 19명 (1902년 7월 4일)

光武 六年 七月 四日 醫學學校 第一回 卒業試驗榜

方漢肅 金明植 劉 珒 孫晉秀 金敎準

以上 五人 優等

蔡永錫 李濟奎 金相建 崔鎮協 朴熙達 韓景敎 安祐璿

許 均 金鳳觀 金性集 李奎溚 韓佑根 尹相萬 李秉學

以上 十四人 及第

合 十九人

(『官報』 제225호, 1902년 7월 12일자)

제2회 졸업생 12명* (1903년 7월 7일)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점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의학교육을 받고 의사가 된 사람들로는 이들 54명 이외에 1908년 6월 3일 제1회로 세브란스병원 의학교를 졸업한 7명²⁶⁾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으로도 우리는 의학교의 역사적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의학교 졸업생들은 대한제국 시절, 특히 의료분야와 군대를 일제가 거의 장악한 1907년까지는 개업을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²⁷⁾ 의학교 교관, 광제원 위원, 군의관 등 관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법령(칙령 제40호)에 의해 졸업과 동시에 전원 의학교 교관으로 발령을 받았지만 그것은 대개 명목적인 것이었으며 실제 교관으로 활동한 사람은 유병필, 주창검 등 몇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 <표 3>과 <표 4>에서 보듯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영역은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 1907년 8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고 이보다 몇달 앞서 광제원이 대한의원으로 흡수 폐합되면서 의학교 출신의 많은 의사가 개업을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나²⁸⁾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光武 七年 七月 七日 醫學校 第二回 卒業試驗榜

池成沈 金守鉉 崔國鉉

崔益煥 車顯聲 張弘燮 姜元永 李基正 金達植 朴世桓

以上 三人 優等

洪鍾旭 吳章煥

以上 九人 及第

合 十二人

(『官報』 제2565호, 1903년 7월 15일자)

* 나중에 朱昌謙이 추가되어 13명

제3회 졸업생 4명 (1905년 12월)

醫學校 第三回 卒業試驗榜目

張基茂 洪鍾殷 洪錫厚

尹重翊

以上 三人 優等

以上 一人 及第

(『官報』 제3326호, 1905년 12월 18일자)

제4회 졸업생 13명 (1907년 7월 9일)

光武 十一年 七月 九日 大韓醫院 教育部 第壹回 卒業生

優等生 金權泰 鄭潤海 洪大喆 李明欽

及第生 權泰東 李圭瓚 申泰永 李錫駿 朴啓陽 李敬植 尹秉學 李承鼎 朴鳳泰

右 學生은 總히 成績이 良好함

(『官報』 제3831호, 1907년 7월 30일자)

제5회 졸업생 5명 (1908년 7월 9일)

優等生 李寬鎬 金孝明 韓民濟

及第生 朴世瑜 李範緯

(金斗鍾, 『韓國醫學文化大年表』(探求堂, 1966), 631쪽에서 인용)

26) 박형우, 앞의 논문.

27) 주 15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들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 없이 내부대신으로부터 醫術開業免許狀을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8) 이 시기 日帝(統監府)에 의해 새로이 마련된 醫術開業認許狀을 새삼스레 취득한 졸업생이 많은 사실이 이를 傍證한다(金斗鍾, 앞의 책, 646-648쪽).

<표 3> 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경력²⁹⁾

제1회 : 1902년 5월 졸업시험, 7월 4일 졸업자 19명 확정 (우등 5명, 급제 14명) 부속병원 실습을 거친 뒤 1903년 1월 9일 졸업식	
성명	약력
방한숙(方漢肅)	
이병학(李秉學)	
한우근(韓佑根)	
손진수(孫晋秀)	1879년 出生, 1902년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4년 10월 流行病豫防委員, 05년 4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09년 8월 1等軍醫
김명식(金明植)	1875년 出生, 1902년 8월 虎列刺病防疫員,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4년 11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09년 11월 1等軍醫
유병필(劉秉泌)	1904년 9월 2等軍醫, 05년 1월 醫學校 敎官, 07년 3월 大韓醫院 敎官(敎授, 正3品), 08년 11월 醫事研究會 總務
이제규(李濟奎)	1873년 出生, 1888년 式年醫科登第, 1904년 10월 太醫院 主事,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7년 5월 3等軍醫
김교준(金敎準)	1884년(?) 出生, 1904년 10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07년 8월 1等軍醫
채영석(蔡永錫)	1868년 出生, 1902년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4년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5년 3월 3等軍醫, 07년 10월 2等軍醫
박희달(朴熙達)	1880년 出生, 1902년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5년 4월 3等軍醫, 08년 6월 2等軍醫
김상건(金相建)	
허균(許均)	1877년 出生, 1902년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3년 3월 軍醫補, 05년 4월 3等軍醫
최진협(崔鎭協)	1875년 出生, 1902년 11월 臨時衛生院委員, 05년 3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한경교(韓景敎)	1867년 出生, 1902년 10월 臨時衛生院委員, 03년 7월 工兵隊 醫官, 05년 4월 3等軍醫, 06년 4월 2等軍醫, 06년 7월 1等軍醫
안우선(安佑璿)	
이규영(李奎榮)	
김봉관(金鳳觀)	1904년 10월 流行病豫防委員, 06년 10월 3等軍醫
김성집(金性集)	1870년 出生, 85년 式年醫科登第, 1905년 4월 3等軍醫
윤상만(尹相萬)	1904년 12월 流行病豫防委員, 3等軍醫

29) <표 3>과 <표 4>는 당시의 『官報』, 신문, 『官員履歷書』 등과 김두종의 앞의 책, 배규숙의 앞의 논문 등을 비교 종합하여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료들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어 이 표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이것 또한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다.

<표 4> 의학교 제2회와 제3회 졸업생들의 경력

제2회 : 1903년 7월 7일 졸업자 12명 확정 (우등 3명, 급제 9명), 1904년 7월 2일 졸업식	
성 명	약 력
자성연(池成沆)	
김수현(金守鉉)	1881년 出生, 1904년 6월 軍醫補, 05년 4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장홍섭(張弘燮)	1869년 出生, 1904년 10월 3等軍醫, 06년 6월 2等軍醫
최익환(崔益煥)	1904년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5년 3월 軍醫補, 4월 3等軍醫
차현성(車顯聲)	
김달식(金達植)	1878년 出生, 1896년 種痘學校 卒業, 1903년 9월 全羅南道 種痘委員, 05년 4월 3等軍醫, 07년 10월 2等軍醫
강원영(姜元永)	1904년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7년 3월 3等軍醫
이기정(李基正)	1904년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7년 3월 3等軍醫
오장환(吳章煥)	
박세환(朴世桓)	
홍중옥(洪鍾旭)	
주창겸(朱昌謙)	1905년(?) 醫學校 敎官
최국현(崔國鉉)	1885년(?) 出生, 1904년 11월 流行病豫防委員 05년 9월 日本 金澤醫學校 入學, 07년 同校 卒業, 07년 3월 3等軍醫, 6월 大韓醫院 醫員, 08년 1월 大韓醫院 醫官, 11월 醫事研究會 幹事
제3회 4명, 1905년 12월 16일 졸업증서 수여	
성 명	약 력
장기무(張基茂)	1905년 12월 3等軍醫, 08년 11월 醫事研究會 幹事
홍중은(洪鍾殷)	1908년 6월 세브란스病院 醫學校 졸업
홍석후(洪錫厚)	1908년 6월 세브란스病院 醫學校 졸업
윤중익(尹重翊)	

4. 의학교 이후

1907년은 기울어져 가던 대한제국의 국운이 더욱 쇠퇴한 해이다. 고종이 일제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국권의 최후 보루인 군대마저 강제 해산된 해인 것이다. 대한제국의 상대적 흥성기에 탄생했던 의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역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의학교는 1907년 3월 <대한의원 관제(大韓醫院 官制)>가 반포되면서 그 운명을 다하게 되었다. 의학교, 광제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대한제국기 대표적인 세 가지 의료기관을 통폐합하면서 생겨난 새 병원의 이름은 시니컬하게도 ‘대한’이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명목상일 뿐 병원은 이미 일제의 것이었다. 의학교는 <대한의원 관제> 제15조 “本令은 光武 十一年 三月 十五日로부터 施行함이라”와 제16조 “本令 施行日로부터 光武 九年 勅令 第十號 廣濟院 官制 及 光武 九年 勅令 第七號 醫學校 官制를 並廢止함이라”³⁰⁾에 따라 1907년 3월 15일자로 폐쇄되었다.³¹⁾

지석영, 유세환, 유병필, 최규익 등 의학교 시절의 한국인 교직원이 계속 자리를 지켰지만 지석영이 학감(學監)으로 강등되는 등 그 입지들이 약화되었다. 대신 의학교 교사로 있던 일본인 고다케가 교육부장으로 학생교육의 책임자가 되었다.

대한의원 시기 동안인 1907년과 1908년에 의학교 시절 입학하였던 학생들이 각각 13명과 5명 등 도합 18명이 졸업을 하였다. 이들 졸업생과 같이 입학하였던 나머지 학생들의 진로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대한의원으로 통폐합되기 이전 시기에 이미 학교 몰래 세무주사 선발 시험에 응시하는 등³²⁾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역경의 시기에 김익남, 안상호³³⁾ 등 의학교 교관을 지낸 인사들과 유병필 등 의학교 졸업생들은 의료를 통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이들은 1908년 11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사단체이자 오늘날의 대한의사협회의 모체인 의사연구회(醫事研究會)를 결성하고 회장 김익남, 부회장 안상호, 총무 유병필(제1회 졸업생), 간사 최국현(제2회 졸업생)과 장기무(제3회 졸업생)를 중심으로 의료활동과 더불어 활발한 항일운동을 벌였다.³⁴⁾ 의사연구회는 일제 강점 직후

30) 여기에서 光武 ‘九年’은 ‘三年’의 誤植일 것이다.

31) 대한의원 설립 및 그 운영과 의학교 폐쇄 등에 관해서는 배규숙, 앞의 논문, 46-51쪽; 기창덕, 앞의 책, 55-59쪽; 신동원, 앞의 책, 338-345쪽 참조.

32) 『皇城新聞』 1906년 11월 7일자.

33) 안상호는 1904년 10월 18일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받아 이듬해인 1905년 1월 16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재임하였지만, 당시 일본에 체류중이었기 때문에 실제 학생교육은 하지 못했다.

34) 『대한의학협회 85년사(1908-1993)』(대한의학협회, 1993)는 “요즘과 같이 학술 연구와 의사들의 친목 도모를 위주로 한 의사단체가 아니라 일본인 의사들이 조직한 鷄林醫學會에 대항하고 일제의 침략정책에 맞서 항일구국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항일결사조직체”(48-49쪽)라고 醫事研究會의 성격을

인 1910년 10월 강제로 해산되는 비운을 맞았지만, 그 정신은 1915년 12월 11일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의사 43명이 모여 만든 한성의사회(漢城醫師會)와 1930년 2월 21일 결성된, 우리나라 의사들이 만든 최초의 전국적 의사단체인 조선의사협회(朝鮮醫師協會)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들 단체에서도 안상호와 박계양(제4회 졸업생) 등 의학교 관련 인사들이 회장과 간사장을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의사단체 활동 외에도 이들은 망국(亡國) 전야의 시기에 『서우(西友)』,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대한흥학보(大韓興學報)』 등 학회지에 활발하게 기고를 하고³⁵⁾ 또 대중강연을 벌임으로써 당시 들불처럼 번지던 위생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이 때의 위생계몽운동은 주지하다시피 대중에게 과학적인 위생관념을 심어 주는 것인 동시에 항일운동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의학교 졸업생들의 학회지 기고문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의학교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에도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위생관념을 보급하기 위해 애썼음을 파악할 수 있다.

吾人인 生活體의 健康을 完全히 保續케 하려면 衛生上에 必要한 目的을 講究치 아니하면 不能할지라 人畜生活의 必要한 目的은 空氣니 人의 呼吸하는 空氣中에 窒素 酸素 炭素 瓦斯가 有하니라 窒素는 生活을 保存케 함이 不能한 瓦斯인 故로 人가이 若 窒素가 充分한 室內에 入는하면 速히 室死生하며 又活 窒素가 身體內에서 生活作用도 關함이 有保하니라 酸素는 人畜生活에 其中 必要한 거시니 … (『西友』 제1호, 필자 : 위생부 회원 김봉관[제1회]).

男女及小兒衛生의 最要注意

一般吾人의 普通衛生에 關한 空氣, 居住家屋, 飲食, 衣服의 如何方法은 本報 第六號에 業已概論하였거니와 今에 男女各人及小兒의 衛生上에 最要注意를 바를 左에 別論함 男子의 不衛生으로 由來한 病原에 最多한 者 五種이 有하니 (一) 精神過損 此病은 特히 上流社會에 頻繁하야 如政治, 哲學, 數學家에 多有한 者라 凡吾人의 精神은 大腦의 兩半球에 在한 者니 其使用과 休息을 適當케 함이 必要하고 若其使用이 過度를 時에는 疾病을 … (『西北學會月報』 총1권 6월호, 필자 : 이규영[제1회]).

生理의 定義及緒論

生理라 함은 動物과 植物常態의 生活現象을 講究하는 學理니 左에 二部로 分하야 生理總論과 生理各論으로 定하였스니 生理總論이라 함은 生活의 普通性即生物質의 本性에 就하야 講究하는 者이오 生理各論이라 함은 各個의 生活體(假令人, 動物, 植物)及該生活體各器官의 生活現象을 講究하는 者이라 茲에는 生理總論에 普通性的 概要만 論述하되 生活機轉을 首先枚舉하노라 … (『畿湖興學會月報』 총1호 8월호, 필자 : 劉秉珽[제1회]).

기술하고 있다.

35) 배규숙의 조사에 의하면 이 당시 학회지에 게재된 위생과 질병에 관련된 글은 대부분 의학교 졸업생들의 것이었다고 한다.

胃攝生의 大要

胃의 攝生을 說明함에 就하야는, 其順序를 從하야, 胃生理의 概要를 預先略陳하노라. 元來 吾人生의 胃에
 는, 二種의 主要한 官能이 有하나, 其一은 分泌의 官能이오, 其二는 運動의 官能이라, 其他 胃에는, 知覺
 官能及吸收官能 等이, 有하나, 此는 前者二種의 官能에, 比하면 極히 重要치 못하 者라 (『大韓興學報』
 총10호, 필자 : 姜元永[제2회]).

의학교는 제도적으로는 1907년 3월 15일 폐지되었지만, 그 전통과 정신은 교관들과 졸업생들
 의 위와 같은 활동들을 통해 계속 이어졌다.

5. 맺는 말

구한말 일본제국주의와 구미 열강의 침탈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정부, 지식인, 민중의 노
 력과 열망에 의해 근대의학 도입의 한 가지 산물로 태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의학교육기
 관인 의학교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십분 달성하지는 못하였고 여러 가지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수명도 8년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와 선각적 인
 사들이 주도한 의학교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최초의 근대적 의사들을 탄생시키는 성
 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활발한 대민활동을 벌임으로써 당시 국민건강 증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의학교 졸업생들과 그 스승들은 국운이 다해가던 대한제국 말기와 그
 보다 더 암흑한 식민지 시기에도 절개와 기개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의학교의 활동 등에 관련해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밝혀야 할 부분들을 몇가지 지적하였지만,
 그러한 연구와 더불어 ‘의학교의 정신’을 되살리고 키워 나가는 실천적 노력도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의학교는 우리나라 근대의학 역사의 소산(所産)이자 자주적인 근대의학교육의 원류(源流)
 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